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 산학연 '원팀' 쾌거

전라남도 나주시가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를 확정 지으며 미래 에너지 교육과 연구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정부 예산 반영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이 협력의향서 제출, 현장 실사 협조 등 결정적 순간마다 한 목소리로 지원한 '원팀 시스템'이 빛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일 국회의결을 통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최대 관문이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당성 조사 통과 과정에서 지역 유관 기관의 헌신적인 지원이 눈에 띄었는데 지난 1월 이전 공공기관 임원 정례 간담회에서 과학관 건립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력의향서를 요청했으며 각 기관은 빠르게 의향서를 제출하며 건립 의지를 함께했다.

이전 공공기관·에너지 산학연, 협력의향서로 과학관 건립 전폭 지지 타당성 조사 현장 실사에 전력거래소·켄텍·전력연구원 등 총력 지원



이 같은 지지 확산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져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남에너지산업협회 등 주요 단체들도 협력 의향서를 제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는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이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 에너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됐다.

타당성 조사 평가단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한전 전력연

구원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등 핵심 에너지 기관들이 바쁜 일정에도 현장 방문과 인터뷰에 적극 협력했다.

이들 기관은 나주가 보유한 에너지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 실증 기반 등을 평가단에 전달하며 과학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 결과 나주는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예산 반영이라는 결정적인 관문을 넘게 됐다.

이는 과학관 건립에 직접 협력해준 총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켄텍, 에너지 관련 산학연 단체와 '에너지 클러스터'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온 덕분에 가능했다.

시는 과학관 건립 확정을 계기로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기관들이 보유한 전문 콘텐츠와 기술력이 건립 및 운영 단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겨울, '산타가든'으로 행복을 전합니다

대형트리부터 산타빌리지·산타버스까지

순천만국가정원이 '바쁜 산타도 쉬어가는 산타가든'이라는 콘셉트로 정원 곳곳을 크리스마스 윈터빌리지로 조성한다.

동문 입구를 시작으로, 호수정원 무대에는 높이 13m의 대형트리가 설치되며 산타가든의 중심 무대가 완성됐다.

이번에 설치된 대형트리는 서울 롯데타워 등 수도권 랜드마크에 설치됐던 프리미엄 트리로, 순천만국가정원에 최초로 도입된 사례다. 수도권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고품격 크리스마스 연출을 정원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2월 중순에는 이 대형트리를 중심으로 '산타빌리지'가 들어선다. 크리스마스 과거, 장난감, 세계여행 등을 콘셉트로 공간을 구성해 관람객들이 마치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정원의 주요 공간도 각기 다른 크리스마스 테마로 변신한다. 식물원 입구는 '레드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꾸며지고, 시크릿 어드벤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채워져 공간마다 색다른 겨울 감성을 선사한다. 특

히 테라피가든에서 크리스마스 한정판 디퓨저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있어, 체험객들에게 정원 속 힐링과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기존 에니벤저스 퍼레이드에 활용됐던 관람차는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새단장한 '산타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며, 플로리스트와 협업한 크리스마스 회전목마도 새롭게 선보여 동화 같은 풍경을 더할 계획이다. 프랑스가든과 낙우송길에는 조명이 더해져 12월의 밤을 더욱 따뜻하게 비추는 '나이트 산타가든'의 분위기가 연출된다.

20부터 25일까지는 '산타가든 워크(가칭)'가 운영된다. 만들기 체험, 보물찾기,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크리스마스를 정원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산타가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정원 전체가 하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공간으로 변하는 시도"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겨울의 낭만과 따뜻한 휴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양시는 산업통상부가 11월 28일 발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의 '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경쟁 심화와 전기차 캐즘 등 시장 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니켈, 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광양시, '기초원료 중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 선언

전주기 생태계 기반으로 'K-배터리 핵심 도시' 도약 박차

방향을 밝혔다.

광양은 국내 최대 규모의 향만·물류 인프라와 포스코그룹 중심의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가 집적된 지역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원광 정제-전구체-양극재 생산-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기초원료 기반 전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산업통상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특화단지 추진 여건이 더욱 뚜렷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산업통상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발표와 맞물려 ▲기업 투자 의향 확보 ▲전라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 대응 ▲정부 수요조사 신속 제출 ▲공모 대응 전담팀 운영 ▲기업 협업체 및 협력체계 가동 ▲R&D·인력양성·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등 특화단지 공모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22일 전라남도도와 함께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산업 전략을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국내에서 기초원료·소재·재활용 전주기 체계를 모두 갖춘 유일한 잠재 후보지로서 공모에 적극 참여해 반드시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인증에서 5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첫 인증으로 시작으로 2017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2025년 재인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해 오고 있음을 입증했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

고흥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 5회 연속 획득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직장 문화 선도

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부여되는 제도다. 고흥군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운영

해 왔으며, 서류 심사와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운영 내용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생일 특별 휴가 부여 ▲가족 휴양시설 제공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만족도를 높여왔다.

고흥/박도일 기자

국제로타리3610지구 구레로타리클럽, 구레군에 김치 100상자 기탁

전남 구레군은 지난 1일(월) 국제로타리3610지구 구레로타리클럽(회장 한창철)이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김치 100상자(10kg, 550만원 상당)를 기탁하며 전달식을 가졌다

고 밝혔다. 한창철 회장은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식재료 마련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 화일들과 뜻을 모아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레군수는 "추운 계절에 꼭 필요한 김치를 전달해 주신 구레로타리클럽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로타리3610지구 구레로타리클럽은 매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물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구레/한경호 기자

영광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총력 대응 돌입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와 대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작업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군은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주요 장비의 정비를 완료하고 제설장비 탑재를 마무리 했으며, 대설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제설준비를 마쳤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12월 2일 영광읍 단주리에 위치한 도로정비차재창고를 방문하여 이러한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제설 자체 비축 현황과 제설덤프·살포기 등 장비의 작동 상태를 세밀히 확인하고, 제설 준비에 참여한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영광군은 11월 말까지 제설장비 정비 및 제설자재 확보를 완료했으며, 국도 및 군도 등 26개소에 모래주머니 설치를 마무리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울겨울은 기상청 전망에 따라 평년보다 많은 적설이 예상된다"라며, 철저한 장비 관리와 신속한 제설 대응으로 군민의 교통 불편 최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주요 도로와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선제적 제설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